

신은 누구인가?

나훔 1:2-7

자, 오늘 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로 합장합시다. 아버지, 오늘 밤 사람의 음성이 아닌 당신의 영이 말씀하시어 우리가 당신에 관한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축복과 감격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의 주제는 제가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매우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입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나훔서 1 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나훔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박국 바로 앞에 나옵니다. 누군가가 "행복은 나훔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나요?

나훔서 1 장,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이 특별한 부분, 2 절부터 7 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관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몇 마디만 언급하자면, 가르치고 설교할 때 자주 소홀히 하는 주요 영역 또는 한 가지 주요 영역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적절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행복한 결혼 생활,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 행복한 가정, 교회를 세우는 방법, 자신의 마음을 아는 방법, 자기 성찰, 그리스도와 개인 정신 분석 같은 인간에 관한 설교와 기사,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수많은 책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에 관한 책이 다섯 권이나 나왔고 그중 네 권은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웬지 우리는 관점을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강조점은 인간 중심입니다. 일종의 기독교적 인간 중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입니다.

가끔 성령에 관한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책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책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서점을 아무리 뒤져봐도 최신 신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선포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설교와 너무 많은 글이 감상적이고 사이비 영적 정신 분석 등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진정한 설교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의 진정한 동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딕 할리스에게 "당신처럼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인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아니요, 저는 중국인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설교할 때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주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속성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운동이 있지만 그 대부분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를 괴롭히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삼위 일체의 다른 두 위격으로부터 고립 될 권리가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한 위격에게만 고립된 운동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기초가 없는 성령 운동은 필연적으로 감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탄탄한 신학의 기초가 없는 예수 운동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괴짜가 되려면 괴짜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체성 측면에서 성령과 그들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분도 저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정체성, 성품, 인격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밤 저는 우리가 그렇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운동, 즉 하나님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신명기 6 장 12 절에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체성과 성품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은 누구일까요? 신은 누구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놀랄 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누구일까요? 매달린 머레이 오헤어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믿음으로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치유를 위해 신성한 능력을 요청하는 병자들에게, 공급을 약속하신 분께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잊어버려, 저 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방정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속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이 나타나서 "그래, 우주의 힘은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은 그것을 실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다른 일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관심하고 감정이 없으시며 모든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명론자는 "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장난을 치는 실용적인 조커입니다: 삶, 의미 없는 존재.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계셔야 하지만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할아버지 타입, 하늘의 산타, 즉 순진하고, 노쇠하고, 방종하고, 시럽 같고, 신념이 없고, 모든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는 천상의 산타"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작은 아들이 와서 "신은 하얀 콧수염이 있나요?"라고 물었어요.

범신론자가 와서 "아니요, 신은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모든 사람의 퍼레이드를 지배하는 우주적 파티꾼이자 일종의 우주적 킬조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볼테르는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은혜에 보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누구일까요? 신은 누구이며 그분은 실제로 어떤 분일까요? 우선 성경에는 네 가지 진리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소개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네 가지 분명한 진리.

첫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신학적인 용어를 원한다면 유일신론, 즉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 인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본질은 영이며 그분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속성과 특징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구절로 끝없이 확장하기보다는 나훔서 1 장 2 절부터 7 절까지 한 구절만 살펴봅시다.

나훔서는 흥미로운 작은 책입니다. 흥미로운 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을 얻고 싶다면 이 작은 선지서를 읽어야 합니다. 사실, 나훔은 LA 고속도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 한 책입니다. 나훔 2 장 3 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용사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다" -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 "그가 예비하신 날에는 병거들이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전나무가 심히 흔들릴 것이며, 전나무가 심히 흔들릴 것이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격노하리라. 그들은 넓은 길에서 서로 부딪힐 것입니다. 그들은 횃불처럼 보일 것이며 번개처럼 달릴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나훔서의 첫 장에는 특정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학대한 앗수르, 특히 니느웨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열 지파를 포로로 끌고 간 데 큰 책임이 있었고, 이제 히스기야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나훔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서입니다.

이 매우 구체적인 예언에서 우리는 첫 장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심판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심판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책, 니느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따라서 첫 장의 맨 처음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훔은 하나님의 장엄한 성품을 다소 번쩍이는 용어로 제시하며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주요 속성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융통성 없는 공의, 저항할 수 없는 능력,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융통성 없는 정의, 저항할 수 없는 능력, 무한한 자비.

우선, 하나님은 융통성 없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신성한 -이 경우에는 정부와 관련된 법적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법을 만드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결과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창조물이 기능해야 하는 원칙을 정할 전적이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마찰하고 위반하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이 최고의 운명에 도달하는 순간은 창조주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융통성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초래합니다.

이제 2 절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3 절의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님은 복수하시며 주님은 복수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주님은 대적들에게 복수를 하시고, 원수들에게 진노를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능력이 크시며 악인을 전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며, 복수와 분노와 진노라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모욕과 모욕을 분개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분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좋을 겁니다. 경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 안에있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의 불명예를 분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듯이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주에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피조물은 그분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법을 파괴하는 자들과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분의 임재에서 영원히 쫓겨납니다.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질투하고 그분 자신의 칭찬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 장에서 -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두뇌에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성구 중 일부를 서둘러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 장 3 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구절은 이미 알고 계시니 굳이 찾아보실 필요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으리니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 책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4 장 14 절 -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질투하는 자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질투라는 이름까지 사용하시며 자신을 질투와 본질적으로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4 장 24 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39 장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거짓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참 신을 반역하는 것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참 신에 대한 참된 숭배가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에스겔서 38 장 18 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에 동시에 이루어지리니 나의 진노가 내 얼굴에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이 붉어지실 정도로 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질투와 진노의 불로 그 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흔들림이 있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들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흔들리며 산이 무너지고 험한 곳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떨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그 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흔들림이 있으리라.

"'내가 나의 모든 산에서 칼을 불러 그를 치리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칼이 그의 형제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무리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 넘치는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많은 민족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그들이 내가 주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서 14 장과 15 장에 "보라 주께서 그 때에 그분의 성도 천 명과 함께 오시리니" -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유죄 판결하시려고"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일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이벌이나 반역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질투는 가능합니다. 여자 친구와 남자 친구, 질투는 가능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관계에 적합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요엘서 2 장 18 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그 땅을 질투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 여러분은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시나요? -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자신의 삶에서 살기 위해 정말 멋진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매춘부였던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 매춘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에게 한 일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불충실 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명예에 대한 질투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질투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을 질투하고, 내 땅을 질투하고, 내 것을 질투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애정을 쏟으셨는데 누군가 그 애정을 빼앗아 가면 질투를 느끼십니다.

마태복음 25 장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 장 31 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분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며, 그분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서로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은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환난은 각국이 유대인을 대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 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들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 시점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도둑맞은 것에 대해 참으로 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질투는 그분의 아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므로 아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 1 장 8 절,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8, "그리스도께서 불꽃같은 불로 오리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사 주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는 성경 구절 중 가장 놀랍고 무서운 구절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16:22 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구절을 들어보세요.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질투하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투하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혐오를 스스로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훔서로 돌아가서 몇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복수하신다. 주님은 복수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주님은 대적들에게 복수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복수에 대해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예비하십니다."

이 구절은 반복과 반복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반복은 엄숙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신명기 32 장에서 하나님은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내가 갚을 것이니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들을 범하지 않고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절에서 주님은 단순히 "악인을 전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방금로드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그분은 분노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통제된 종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나훔서에서 주님은 니느웨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서 그분은 그분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동일한 분노를 나타내 십니다.

아마 아마겟돈 전투의 최후를 보는 요한계시록 19 장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격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요한계시록 초반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짓밟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남비 팸비 같은 관용을 베푸시는, 일종의 노쇠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반역자도 그분의 면전에서 존재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1 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하늘로부터 드러난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요. 그분은 반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라고 나훔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진노", 즉 분노나 진노를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 예비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3 절의 시작 부분,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능력은 크시며 악인을 전혀 무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나니"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큰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옥 불과 저주에 대한 설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지옥 불과 저주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은 저 위에 있고 그분은 그렇게 강력하신데 왜 뭔가 하지 않으시나요?"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오래된 대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 장 9 절을 기억하시나요?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 날까지 예비하사 벌을 내리실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3 장 3 절에 비웃는 자들이 온다 "이것을 먼저 알라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자기 정욕을 좇아 행하며 이르되 주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복수를 위해 세상을 침공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여기에 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계속됩니다." -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그들은 기꺼이 무지하고 홍수를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그 약속에 대하여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 땅도 녹아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와 무력함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안에서 분노를 참으십니다. 자비를 무력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3 절의 "여호와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능력은 크시도다"를 보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악인을 전혀 무죄로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융통성이 없으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 장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내심에 대해 공부하기에 좋은 장이지만, 잠언 29 장 1 절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하여 구제할 길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느헤미야 8 장은 하나님께서 목이 뻗뻗한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결국 자주 책망을 받는 자는 갑자기 멸망하여 구제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다고 한 순간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글쎄, 소년, 하나님은 정말 - 그는 정말 엄격합니다. 그게 정의로운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그분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역자에게 하나님은 융통성없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 "정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심판 - "있는 자에게" - 뭐? -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표준에 순종했다면 결코 심판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융통성 없는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상적인 진술입니다. 이것은 위엄을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운데 3 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서 그 길을 가시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니이다." 장엄하지 않나요? 회오리바람이 불 때마다,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해쳐 나가십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그분의 길을 가시고 그분은 그것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19 장에서 하나님이 불과 연기 속에서 산에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바람과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기의 하늘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며, 그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은 대기권인 하늘입니다. 3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구름, 회오리바람, 폭풍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 큰 영광으로.

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하늘에 의해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거 아세요? 인간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요한 계시록 6 장 12 절에 "보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서 해가 붉은 베옷 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니 이는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릴 때에 때 이른 무화과를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8 장 12 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소리를 내니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도 그 삼분의 일 동안 빛나지 아니하며 밤도 마찬가지로"고 말씀합니다.

16 장 8 절에 "그가 대접을 해 위에 쏟으시니 불로 사람을 태울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더라. 사람들은 큰 열로 타서이 재앙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며 언젠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의 증거뿐만 아니라 물의 증거도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 절, "그가 바다를 꾸짖으시며"를 보세요. 마가복음 4 장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다를 꾸짖으사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라지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을 만큼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 8 장 8 절에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던 생명 있는 생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멸망하더라"고 했습니다.

10 절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등불처럼 타오르며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의 샘 위에 떨어지더라.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었으니 이는 물이 쓴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물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16 장 20 절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모든 돌은 한 달란트 무게 정도였습니다." - 분명히 약 100 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산과 섬들이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바다는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증언과 물의 증언이 있습니다.

셋째, 땅이나 땅의 증언입니다. "바산과 갈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꽃이 시들었도다." 이스라엘의 북쪽, 서쪽, 동쪽 경계 또는 동쪽, 서쪽, 북쪽 경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가장 비옥한 지역의 비옥함을 파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 장에서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구는 - 뭐라고요? -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6 장 20 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땅에 임할 엄청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한 계시록 8 장 - 7 절인 것 같습니다 -에서도 같은 종류의 표시를 제공합니다. "피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나무의 3분의 1 이 타버렸고 푸른 풀은 모두 타버렸다." 지구의 멸망과 파괴. 그분은 꽃을 시들게 할 수 있고, 풀을 시들게 할 수 있으며, 땅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실제로 5 절에 보면 "그분 앞에서 산이 흔들리고 언덕이 녹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분의 면전에서 불타고, 즉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불타 오릅니다. "땅이" - "땅이" - "그분의 면전에서" - "땅이" - "땅이" - "땅이" - "땅이" - "땅이" - "땅이" - "땅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권능은 땅이 움직일 때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진은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나요? 단층 위에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인 스릴인지 깨달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이지요.

사도행전 16 장에 나오는 바울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 엄청난 결과를 보았습니다. 16 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빌립보 간수와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진을 통해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땅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죠.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하시며 원하시면 언제든지 땅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 요한계시록 6 장, 요한계시록 11 장, 요한계시록 16 장 - 하나님께서 지구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흔들림으로 지구를 흔들어 놓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 준비가 되면 땅을 흔드십니다. 그분은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언덕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 장에 보면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아 지구의 원자 분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6 절에 "누가 그분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부어지고 바위가 그분에 의해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절대적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권능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융통성 없는 공의와 저항할 수 없는 권능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 장 25 절부터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경고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시는 이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이를 외면하면 우리가 피하지 못하겠느냐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진동하였으나 이제는 약속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땅만 진동하지 아니하고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아직 한 번 더'라는 단어는 만들어진 것들처럼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아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움직일 수 없는 나라를 받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함당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소멸하는 불로 받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흔들 것입니다. 땅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권능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항상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셋째,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7 절, "여호와와 선하시다" - 정말 상쾌하지 않나요? - "환난 날에 요새가 되시며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나이다."

저는 항상 말라기 예언에 나오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언이 주어질 때 그들은 심하게 말하면 신발이 덜컹거리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있었고 그들은 "오"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 3 장 16 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도 다 받게 될까?"라고 그들은 떠들고 있었습니다. - "주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니" - 주께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셨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앞에 기억의 책이 기록되니" -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보석을 이루는 그 날에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멋지지 않나요? "내게는 책이 있고, 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 장 1 절에 "'보라 아궁이 같이 타는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수염이 되리니 그 날이 그들을 불사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2 절,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 즉 신실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여호와와 선하시니 환난 날의 산성이시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반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니까요.

그거 아세요? 주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삼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주님이 진짜 선동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둘러보며 "질병을 보라, 죽음을 보라, 가난을 보라, 정신 질환과 장애를 보라, 복수를 보라, 세상의 모든 공포를 보라"라고 말하죠. 신이 선하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끊임없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서에서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며 찾는 자에게 선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의 말씀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비꼬아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분은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시편 33 편은 "땅에는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갈색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갈색 잔디, 갈색 꽃, 갈색 하늘.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색을 입히셨을까요? 다양한 색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색깔, 비, 지구의 아름다움.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하십니다."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러한 영역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경험합니다. 솔로몬은 "그분의 선하신 약속이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까지 내 평생을 먹이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환난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피난처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니"(신명기 33:27)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아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뿐이라는 뜻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신다"는 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가인이 아내를 알았더니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라, 나는 결코" - 뭐라고요? - "당신을 알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나는 사랑 관계의 친밀함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단어는 친밀한 사랑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분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나 생각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 미가서 마지막 장의 18 절 - 미가서 7 장 18 절, "주와 같이 죄악을 사하시며 남은 자의 범죄를 지나치시는 신이 어디 있으리요? 그분은 인자를 기뻐하시므로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분은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게 자비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자비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친구여. 바로 그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표준은 - 이것 보세요 -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는 한 가지 행위로 순종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주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니, 그 크신 은혜로 몸을 굽히시게 하였고, 거룩하심이 더럽혀지지 않으셨 으면서도 처진 마음을 다루시나이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내 지성에는 어둡지만 내 마음에는 햇빛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기준에 맞추세요. 당신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테레프 베데이에게 "내가 주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라는 구주의 음성을 듣지 말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기도로 합장합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는 방금 주님을 조금만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융통성없는 정의와 저항 할 수없는 힘으로 보았고 무한한 자비의 달콤함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2 장 4 절에서 말한 대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손이 머무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고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여기에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곳에 반란군이 없기를. 당신과 경쟁하여 당신의 심판을 느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비로 다가와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과 굶주림과 갈망을 주셔서 오늘 밤이 그들의 회심의 밤이 되고, 오늘 밤이 그들의 회개의 밤이 되고, 그들이 당신의 면전에 들어와 반역자가 되지 않고 아들이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